

자신의 범행과 딸을 보게 되었소. 그는 너무나 괴로워
 말문이 막힌 채 벽에 걸려 있던 칼집에서 번쩍이는 칼을 뽑소. 475
 뒤편이라는 도망쳤고, 캄캄한 밤의 어둠 덕분에 죽음을 면했소.
 그녀는 넓은 들판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아라비아의 종려나무와 팡카이아 나라를 떠났소.
 초승달의 뿔들이 아홉 번 돌아오는 동안 그녀는 여전히 해매는
 신세였고 지칠 대로 지쳐 사바이이족⁸⁶의 땅에 주저앉았소. 480
 이제 그녀는 자궁 안의 짐을 간신히 넣고 다닐 정도였소.
 그때 그녀는 무엇을 기원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죽음의 공포와
 삶의 혐오 사이에서 이런 말로 기도했소. ‘신들이시여, 혹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신다면, 아뢰옵건대, 나는 별받을 짓을 했으니
 별받기를 거절하지 않겠나이다. 하오나 내가 살아남아 산 자들을 485
 모욕하고, 죽어서 죽은 자들을 모욕하지 않도록 두 영역에서 나를
 내쫓으시고, 나를 변하게 하시되 살지도, 죽지도 않게 해주소서!’
 어떤 신이 그녀의 기도를 들었소. 아무튼 그녀의 마지막 간청을
 들어주는 신들이 있었소.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다리를
 대지가 덮으며 그녀의 발톱에서 뿌리가 옆으로 뻗어 나와 490
 높다란 나무줄기의 튼튼한 받침대가 되어주었기 때문이요.
 그녀의 뼈는 단단한 나무가 되고, 가운데의 골수는
 그대로 남고, 피는 수액이 되고, 팔은 큰 가지가 되고, 손가락은
 잔가지가 되고, 살갗은 딱딱한 나무껍질이 되었던 것이요.
 자라나는 나무는 어느새 그녀의 무거운 자궁을 감고 그녀의 495
 가슴을 덮고 나서 그녀의 목을 덮을 채비를 하고 있었소.

86 Sabaei(그/Sabaioi). 서남 아라비아의 사바(Saba) 지역에 살던 부족.

그녀는 기다리고 싶지 않아 커 올라오는 나무를 마중 나가
아래로 내려앉으며 그 나무껍질에다 얼굴을 묻었소.

그녀는 몸을 잃으면서 옛날의 감정도 잃어버렸으나, 그래도
여전히 눈물이 흘러 나무에서 뜨거운 방울이 뚝뚝 떨어졌소.

500

그녀의 눈물에도 명예가 주어졌으니, 나무껍질에서 방울져 떨어지는
물약⁸⁷은 안주인의 이름을 간직한 채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오.

하지만 범죄에 의해 잉태된 아이는 나무 안에서 자라나서
어머니를 떠나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었소.

잉태한 나무는 몸이 무거워져 배가 불룩했고, 어머니에게는
뱃속의 짐이 힘에 부쳤소. 산모는 진통이 와도 말로 이를

505

표현할 수 없었고, 목소리로 루키나를 부를 수 없었소.

그래도 나무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몸을 구부린 채

연방 신음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눈물에 젖었소.

자애로운 루키나가 괴로워하는 나뭇가지에 다가서서

510

그 위에 손을 얹으며 출산을 돕는 주문을 외었소.

그러자 나무가 벌어지며 갈라진 나무껍질 사이로 살아 있는 짐을
내려놓으니 남자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소. 그러자 물의 요정들이

그 아이를 부드러운 풀밭에 누고 어머니의 눈물을 발라주었소.

시기심조차도 그 아이의 잘생긴 얼굴을 칭찬했을 것이오.

515

그 아이는 화폭에 그려진 발가벗은 아모르⁸⁸ 중 한 명과

같았기 때문이오. 하지만 차림새에서도 차이가 나지 않으려면,

가벼운 화살통을 그에게 주거나 그들에게서 빼앗아야 할 것이오.

87 물약의 라틴어 murra는 뮌라에게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88 4권 758행 참조.

아도니스와 베누스

날개 달린 시간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어느덧 지나가니,
세월보다 빠른 것은 없소. 제 누이의 아들이자 제 할아버지의 520
아들이기도 한 그는 얼마 전에 나무 안에 숨고, 얼마 전에
태어났건만, 그 뒤 곧 더없이 아름다운 소년이 되더니 어느새
청년이 되고 어느새 어른이 되며 이전의 자신보다 더 아름다웠소.

그는 어느새 베누스의 애인이 되어 그녀가 어머니에게
정염을 심어준 것에 앙갚음했소. 화살통을 맨 소년⁸⁹이
어머니에게 입맞추다가 툭 튀어나온 화살로 525
뜻하지 않게 어머니의 가슴에 생채기를 낸 것이요.
여신은 부상 당하자마자 손으로 아들을 밀쳤지만 상처는
겉보기보다 깊었고, 여신도 처음에는 그런 줄 몰랐소.

그리하여 남자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힌 그녀는 더이상
퀴테레아의 해안⁹⁰에도 관심이 없었고, 깊은 바다에 둘러싸인 530
파포스도, 물고기가 많은 크니도스⁹¹도, 광물이 많이 나는
아마투스도 찾지 않았소. 그녀는 하늘도 멀리했으니,
아도니스가 하늘보다 더 좋았던 것이요. 그녀는 그의 걸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녔고, 전에는 늘 그늘에서 하릴없이
아름다움이나 가꾸곤 하는 것이 일이었으나, 지금은
디아나처럼 무릎까지 옷을 걸어올린 뒤 허리띠로 동여맨 채 535

89 쿠피도.

90 '퀴테레아의 해안'이란 라코니케 지방 앞바다에 있는 퀴테라 섬의 해안을 말한다. 퀴테라에 관해서는 4권 190행 참조.

91 Cnidos(그/ Knidos). 소아시아 카리아 지방의 도시.

산등성이와 수풀과, 덩불이 우거진 바위 사이를 돌아다녔소.
 그러면서 그녀는 사냥개를 부추겨 사냥하기 안전한 짐승인
 허겁지겁 도망치는 토끼와 뿔이 우뚝한 수사슴과
 노루를 추격했소. 강력한 멧돼지는 멀리했고,
 약탈자인 늑대와 발톱으로 무장한 곰과 소떼를 죽여 포식하는 540
 사자는 피했소. 그녀는, 아도니스여, 그대에게도 이들
 짐승을 두려워하라고 충고했소. 혹시 자신의 충고가 무슨
 도움이 될까 해서 말이오. ‘도망치는 것들에게는 용감하라.’ 하고
 그녀는 말했소. ‘하지만 대담한 것들에게 대답한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젊은이여, 내가 위협해질 수 있으니 무턱대고 덤비지 말고,
 자연이 무기를 준 야수는 도발하지 말라. 그대의 영광을 위해 545
 내가 큰대가를 치르는 일이 없도록 말이다. 그대의 젊음도,
 그대의 미모도, 그밖에 베누스를 움직인 것들도 사자와
 센털의 돼지와, 야수의 눈과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한다.
 날카로운 멧돼지의 구부정한 엄니에는 벼락이 들어 있고, 550
 황갈색 사자에는 충동과 엄청난 분노가 들어 있어,
 나는 그런 것들이 싫구나.’ 그가 그 까닭을 묻자 그녀가 말했소.
 ‘말해주지. 그러면 옛날에 있던 과오의 끔찍한 결과에 놀라겠지.
 하지만 나는 익숙하지 않은 노고에 지쳤다. 보라,
 마침 미루나무가 그 그늘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고, 555
 잔디가 누울 자리를 내주는구나. 거기서 그대와 쉬고 싶다,
 (그리고 그녀는 쉬었소.) 땅바닥 위에서.’ 그녀는 풀밭과
 그의 위에 누워서 젊은이의 가슴을 베고는
 이야기 도중에 간간이 입맞추며 이렇게 이야기했소.

아탈란타와 힙포메네스

‘어떤 소녀가 달리기 경주에서 발 빠른 남자들을 이겼다는 말을
560
그대도 아마 들었겠지. 그소문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그녀가 그들을 이겼으니까.) 그녀의 빠른 발과 미모 중
어느 것이 더 칭찬받아 마땅한지 그대는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녀가 남편에 관해 물었을 때 신이 대답했어. <아탈란타⁹²야,
너는 남편이 필요 없다. 너는 남편과의 결혼을 피하도록 하라. 565
하지만 네가 피하지 못하고 살게 된다면 너 자신을 잃게 되리라.>⁹³
그녀는 신탁에 놀라 결혼도 하지 않고 우거진 숲속에 살면서
치근대는 구혼자들의 무리를 가혹한 조건을 걸어 물리치곤 했어.
<먼저 경주에서 나를 이기기 전에는 나를 차지할 수 없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지. <그대들은 나랑 달리기 경주를 해요! 570
발 빠른 이에게는 상으로 아내와 신방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이의 상은 죽음이에요. 그것이 경주의 조건이 되게 하세요!>
그녀는 사실 무자비했지만 워낙 아름답고 매력적인지라
성급한 구혼자들은 그런 조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몰려왔어.
힙포메네스는 이 잔인한 경주의 구경꾼으로서 앉아 있다가 575
<아니, 그토록 큰 위험을 무릅쓰고 아내를 구한단 말인가?>
하고 젊은이들의 지나친 사랑을 비난했지. 하지만 그는
그녀의 얼굴과 옷 벗은 몸⁹⁴을 보자마자— 그녀의 몸은

92 8권 380 및 426행 참조.

93 아탈란타가 결혼에 관해 신탁에 물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문헌에는 나오지 않는다.

94 아탈란타는 도자기에서 옷을 벗고 경주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고전시대에 그리스 남자들은 알몸으로 연습도 하고 경기도 했다.

내 몸 또는 그대가 여자가 되었다라면 그대의 몸과 같았으니까—
아연실색하여 두 손을 내밀며 말했다.

580

〈조금 천 그대들을 비난한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대들이 다투는
상의 가치를 여태 몰랐지 뭐요.〉 그는 이제 정념의 포로가 되어,
젊은이 가운데 그녀보다 더 빨리 달리는 이가 없기를 바랐고,
혹시 그런 이가 있을까 시기심에서 두려워했지. 그러다 〈한데 왜 나는
이 경기에서 행운을 시험해보면 안 되지?〉 하고 말했다.

585

〈신도 용감한 자들은 돕는 법이지!〉 힌포메네스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소녀는 날개 달린 발걸음으로
나는 듯이 지나갔어. 아오니아의 젊은이에게는 소녀가 스쿼티아의
화살 못지않게 빨리 달리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그는 소녀의

590

우아함에 점점 더 빠져들었어. 달리기 자체가 그녀를 우아하게
만들었지. 그녀가 신은 샌들의 빠른 발바닥으로부터 끈⁹⁵이
미풍에 나부꼈고, 상아 같은 어깨 위로 출렁거리는 머리 하며,
가장자리에 수를 놓은 무릎 끈도 나부꼈어. 그리고 그녀의
소녀다운 하얀 살갓이 발그레한 색을 띠기 시작하니,

그 모습은 하얀 대리석 현관 위에 쳐놓은 자줏빛 차일(遮日)이
거기에 본래의 것과 다른 색조의 그늘을 드리울 때와 다르지 않았어.

595

나그네가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고 있는 사이에 마지막
한 바퀴를 돈 아탈란타가 승리자로서 축제의 화관을 썼어.
패배자들은 한숨을 쉬며 약속대로 벌을 받았지.

젊은이는 이들의 운명에도 겁먹지 않고 한가운데에
자리잡고 서서 처녀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600

95 발목에 맨 가죽끈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 그대는 게으른 자들을 이김으로써 쉽게 명성을 얻으려 하시요?

자, 나와 겨루시오! 행운이 내게 승리를 준다면, 그토록

위대한 적에게 지는 것은 그대에게 치욕이 되지 않을 것이요.

내 아버지는 옹케스투스⁹⁶의 메가레우스이고, 그분의 할아버지는

605

넵투누스라오. 그러니까 나는 바다의 왕의 증손이오.

내 용기도 내 가문 못지않소. 행여 내가 진다면, 그대는

힉포메네스를 이겼으니 기억에 남을 큰 명성을 얻을 것이요.>

스코이네우스의 딸⁹⁷은 부드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다가,

질까 아니면 이길까 망설이며 이렇게 혼잣말을 했어.

610

<잘생긴 젊은이를 시기하는 신이 누구시길래 저 사람을

죽게 하려고 소중한 목숨을 걸고 내게 구혼하라고

명령하는 것일까? 내가 판단하기에, 내게 그런 가치는 없어.

나를 감동시키는 것은 그의 미모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나를 감동시킬 수 있겠지만) 그가 아직

소년이라는 점이야. 나를 감동시키는 것은 그 자신이 아니라

615

그의 나이야. 그에게는 용기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백이 있어.

혈통을 따지자면 해신의 4대손이 아닌가? 또 가혹한 운명이

그에게 나를 허락하지 않을 경우 죽을 각오를 할 만큼

나와의 결혼을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있지 않은가? 나그네여,

할 수 있을 때 피투성이가 된 결혼을 뒤로하고 이곳을 떠나세요!

620

나와의 결혼은 잔혹한 파멸이 될 거예요. 그대와의 결혼을 거절할

소녀는 아무도 없을 것이며, 현명한 소녀라면 오히려 그대 같은

96 Onchestus(그/Onchestos). 보이오티아 지방의 도시.

97 아탈란타.

신랑을 바랄 거예요. 아니, 이미 여럿이 죽었는데
내가 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지? 그런 걱정은 그가 해야지.

그는 수많은 구혼자의 죽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는 것에 싫증을 내고 있으니 죽으라고 해!

625

그렇다면 그는 나와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죽게 되고,
사랑한 죄로 부당한 죽음을 감수하게 될 것인가?

내가 승리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미움을 사게 될 거야.

하지만 그제 어디 내 잘못인가! 그대가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대가 제정신이 아니니 나보다 더 빠르다면 좋으련만!

630

아아, 그의 소년 같은 얼굴은 꼭 소녀의 얼굴 같구나.

아아, 가련한 힙포메네스여, 그대가 나를 보지 않았더라면!

그대는 살 가치가 있었는데! 내가 더 복을 타고나고

무뚝뚝한 운명이 내게 결혼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그대야말로

내가 잠자리를 같이하고 싶었을 유일한 남자일 텐데!>

635

그녀는 순박한 데다 처음으로 사랑의 포로가 되어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어. 벌써 백성과 그녀의 아버지가

통상적인 경주를 요구하자 넵투누스의 자손인

힙포메네스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나를 부르며 말했다.

<퀴테레이⁹⁸여, 바라옵건대, 내가 감행하는 일을 도와주시고,

640

그녀가 지른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해주소서!>

부드러운 미풍이 그의 듣기 좋은 기도를 내게 실어다주었을 때, 솔직히

나는 감동했어. 하지만 그를 돕자면 지체할 시간이 없었지.

98 4권 190행 참조.

토착민들이 타마수스⁹⁹ 들판이라고 부르는 들판이 있는데,
 퀴프루스 땅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역인 이곳을 옛 원로들이 645
 내게 봉헌하며 내 신전에 선물로 덧붙여주라고 명령했지.
 그 들판 한가운데에는 황금 잎이 반짝이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그 황금가지는 바람에 딸랑딸랑 울리고 있지.¹⁰⁰
 그곳에서 오는 길에 나는 마침 거기서 딱 황금 사과¹⁰¹ 세 개를
 손에 들고 있었지. 힉포메네스 외에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650
 나는 그에게 다가가 사과들을 어디다 쓰는 것인지 가르쳐주었어.
 나팔이 출발하라는 신호를 울리자, 두 사람은 웅크린 자세로 출발점에서
 내달았고, 모래의 표면을 빠른 발로 가볍게 스쳤지. 그대는 그들이
 마른 발로 바다의 수면 위를 스쳐 지나가고,¹⁰² 서 있는 곡식의
 누런 이삭 위로 내달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655
 사람들은 큰 소리로 젊은이를 응원하며 이런 말로 격려했어.
 <이제야말로, 이제야말로 힘을 낼 때야. 힉포메네스, 앞으로 내달아!
 이제야말로 있는 힘을 다해! 꾸물대지 마! 넌 꼭 이길 거야!>
 이런 말을 듣고 더 좋아하는 것이 메가레우스의 영웅다운
 아들인지 아니면 스코이네우스의 딸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어. 660
 오오, 그녀는 그를 앞지를 수 있는데도 얼마나 자주 머뭇거리며

99 Tamasus(그/ Tamassos). 퀴프루스 섬의 중앙에 있는 도시.

100 직역하면 '가지는 노란 황금으로 딸랑딸랑 소리를 내고 있다'가 될 것이다. 이 문장은 베르길리우스의 '황금가지'(『아이네이스』 6권 209행 참조)를 연상케 한다.

101 이 사과들은 대개 대지의 서쪽 끝에 있는 헤스페리데스들의 정원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2 베르길리우스의 카밀라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말한다. 『아이네이스』 7권 808행 이하 참조.

그의 얼굴을 보다가 주춤하며 마지못해 그를 뒤에 남겨두었던가!
그의 지친 목구멍에서는 메마르고 거친 숨소리가 나는데
결승점은 아직도 멀었어. 마침내 넵투누스의 자손은
세 개의 나무 열매 가운데 하나를 던졌어.

665

그것을 보자 놀란 소녀는 반짝이는 사과가 탐이 나
주로(走路)에서 벗어나더니 굴리가는 황금을 집었어.
힉포메네스가 앞지르자 관중들이 박수갈채를 보냈지.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달려, 지체하느라 놓친 시간을 만회하고는
다시 짧은이를 등뒤에 남겨두었지.

670

두 번째 사과를 던지자 그녀는 다시 지체하다가 뒤따라와
남자를 앞질렀어. 이제는 주로의 마지막 부분만이 남아 있었지.
<이제 선물을 주신 여신이시여,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하고 짧은이는 반짝이는 황금을, 그녀가 돌아오자면 시간이
걸리도록, 있는 힘을 다해 들판의 한쪽으로 비스듬히 던졌다.

675

소녀는 그것을 주우려 갈까 말까 망설이는 것 같았어.
나는 그것을 줌도록 강요하고 그녀가 주운 사과를 무겁게 함으로써
짐의 무게와 시간 손실로 똑같이 그녀를 방해했지.
하지만 내 이야기가 경주 자체보다 더 길어지는 일이 없도록,
소녀는 추월당했고 승리자는 자기 몫의 상을 데리고 갔지.

680

그만하면, 아도니스여, 나는 그에게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고,
분향의 명예를 받을 만하지 않은가? 한데 그는 배은망덕하게도
감사하다는 인사도, 분향도 하지 않았지. 나는 갑자기 화가 났어.
무시당한 것이 괴롭고, 또 앞으로 무시당하는 일이 없도록 나는 그들을
응징했으니, 사람들이 그들을 교훈으로 삼게 하려는 것이지.
그들이 우거진 숲속의 신전 옆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685

그 신전은 유명한 에키온¹⁰³이 전에 서약을 이행하느라 신들의
어머니¹⁰⁴에게 지어주었지. 먼길을 온 그들은 쉬어가고 싶었어.
힉포메네스는 때 아니게 그곳에서 동침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는데, 그것은 내 신성(神性)이 불러일으킨 것이었지.
신전 가까운 곳에 햇빛이 거의 들지 않고 지붕이 자연석으로 된,
흡사 동굴 같은 구석진 곳이 있었어.

690

예로부터 성소로 여겨지던 이곳에 사제들이 옛 신들의
목상(木像)을 모셔놓았지. 그는 이곳으로 들어가
금지된 욕망을 채움으로써 성소를 더럽혔어.

695

그러자 신성한 상(像)들은 시선을 돌렸고, 탑 모양의 관(冠)을 쓴
어머니¹⁰⁵는 그들을 스틱스의 물결에 담글까 하고 망설였어.

하지만 그 별은 가벼워 보였어. 그래서 잠시 전만 해도 부드러운
그들의 목덜미는 황갈색 갈기로 덮이고, 손톱은 구부러져
짐승의 발톱이 되고, 팔은 다리가 되고, 체중이 대부분
가슴에 실리면서 그들은 꼬리로 모래 바닥을 쓸게 되었어.

700

그들은 얼굴에 성난 빛을 띠고 말하는 대신 울부짖고,
신방 대신 수풀을 자주 찾곤 하지. 그들은 이제 다른 자들이 다
두려워하는 사자가 되어 길들여진 입으로 퀴벨레의 재갈을 문단다.
사랑하는 소년이며, 그대는 이들뿐 아니라, 도망치려고 등을
돌리지 않고 싸우려고 가슴을 들이미는 야수는 모두 피하라!
그대의 용기가 우리 둘에게 파멸이 되지 않도록 말이다.’

705

103 3권 126행 참조.

104 퀴벨레.

105 탑 모양의 관을 쓴 퀴벨레에 관해서는 오비디우스, 『로마의 축제들』 4권 219행 참조.

아도니스의 죽음

여신은 충고를 마치고 백조들이 끄는 수레를 타고
대기를 지나갔소. 하지만 그의 용기는 충고를 따르려 하지 않았소.
마침 그의 사냥개들이 확실한 발자국을 뒤쫓다가 은신처에 710
숨어 있던 멧돼지 한 마리를 들쭉시자, 숲 밖으로 나오려던
녀석을 키누라스의 젊은 아들이 옆에서 창을 던져 맞혔소.
사나운 멧돼지는 구부정한 주둥이로 제 피로 물든 사냥용 창을
금세 뽑아버리고 겁에 질려 안전을 위해 도망치던 그를
뒤쫓아가 어머니들을 그의 사타구니 사이로 깊숙이 찔러 넣어 715
죽어가는 그를 황갈색 모래 위에 길게 누웠소.
퀴테레아는 날개 달린 백조들이 끄는 가벼운 수레를 타고
대기 한가운데를 지나가다가 아직 쿠프루스에 이르기 전에도
죽어가는 젊은이의 신음 소리를 멀리서 알아듣고 하얀 새들을
그쪽으로 돌렸소. 그가 숨이 끊어진 채 여전히 제 피 속에서 720
허우적거리는 것을 높은 하늘에서 보고는 그녀는
뛰어내리더니 옷을 찢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손바닥으로
죄 없는 가슴을 쳤소. 그녀는 운명에 시비를 걸며
'하지만 모든 것이 그대들의 지배 아래 들지는 않으리라.'라고 말했다.
'아도니스여, 내 슬픔을 기념하는 축제¹⁰⁶는 언제까지나 725
지속되어, 해마다 되풀이되는 그대의 죽음의 장면에서
사람들은 그대를 향한 내 애도를 흉내낼 것이다.

106 매년 6월 말에 열리는 아도니스제의 행렬에서는 베누스와 아도니스의 상이 운반되었다 한다.

하지만 그대의 피는 꽃으로 변할 것이다. 페르세포네여, 전에
그대에게는 한 여인¹⁰⁷의 사지를 향기로운 박하로 바꾸는 것이
허용되었거늘, 내가 키뤼라스의 영웅다운 아들을
변신시킨다고 해서 시샘을 사지는 않겠지요?’

730

그녀는 향기로운 넥타르를 그의 피에다 뿌렸소. 넥타르가 닿자
피가 부풀어올랐는데, 그 모습은 마치 누런 진흙¹⁰⁸에서
투명한 거품이 솟아오를 때와도 같았소. 한 시간도 채 안 되어
핏빛 꽃 한 송이가 피어났는데, 그 색깔은 마치 질긴 껍질 아래
씨를 숨겨두는 석류나무의 열매와 같았소.

735

하지만 그 꽃은 오래 즐길 수는 없소. 약하게 매달려 있는데다
너무나 가벼워 쉬이 떨어지는 그 꽃을 바로 그 꽃에 이름을
대준 바람¹⁰⁹이 흔들어 떨어뜨리기 때문이요.”

107 요정 민테.

108 앤더슨의 텍스트에 따라 caelo(‘하늘에서’)로 읽지 않고 뵈머(Bömer)의 텍스트에 따라 caeno(‘진흙에서’)로 읽었다. 둘 다 뜻이 모호하지만 그래도 caeno로 읽어야 다소나마 뜻이 통할 듯하다.

109 아네모네(anemone)란 꽃 이름이 ‘바람’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anemos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은 오비디우스 이전의 문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